

Issue Comment

2018. 1. 22

은행

금융권 자본규제 개편: 예대율 산식 변경



은행/지주

Analyst 은경완

02. 6098-6653

kw.eun@meritz.co.kr

금융당국, 금융권 자본규제 개편방안 발표 → 가계에서 중소기업으로의 성장 축 이동

전일 금융당국, 금융권 자본규제 개편방안 발표. 언론 보도상 은행권에 유의미한 주요 내용은 1) 예대율 산식 변경, 2) BIS 자기자본비율 계산시 고위험 주택담보대출(LTV 60% 이상)의 위험가중치 단계적 상향(35% → 70%) 조정, 3) 가계대출에 대한 경기대응완충자본(CCyB) 도입 등 크게 3가지.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가계대출 증가세 억제와 (중소)기업대출 확대를 통한 생산적 금융을 강조하는 현 정부의 정책 스탠스를 재차 확인.

예대율 산식 변경 → 차주별 가중치 차등화(가계 +15%, 기업 -15%)

투자자에게 가장 불편한 사항은 예대율 산식 변경에 따른 은행권 조달비용 증가(≒NIM 훼손) 우려. 실제 가계여신 비중이 높은 시중은행의 경우 회사별로 차이는 존재하나 0.4~7.1%p(평균 1.5%p)의 예대율 상승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일부 은행은 현행 규제 범위인 100%를 상회. 상대적으로 (중소)기업대출 비중이 높은 지방은행의 경우 약 4.2%p의 예대율 하락이 예상.

주도주와 소외주간의 투자 변곡점? 여전히 시중은행 중심의 접근 유효

1) 도입 전 유예기간 부여, 2) 가계 여신 가중치 상향과 기업 여신 가중치 하향이 동시에 진행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급격한 예대율 변화에 따른 조달비용 증가 가능성은 제한적. 또한 지난 해 8월, 부동산 대책을 필두로 시작된 은행권 규제 리스크가 막바지에 진입했다는 점도 정책 불확실성 해소 관점에서 긍정적.

대출(Q)에 대한 규제 강화는 역으로 금리(P) 규제 가능성 약화를 의미. 은행의 유일한 대출 수요 차단 수단은 금리이기 때문. 실제 현 정부 출범 후, 가계대출 가산금리와 중소기업대출 가산금리는 디커플링. 가계 가산금리 인하는 초과 대출 수요를 발생시켜 1) 부동산 가격 상승, 2) 비트코인 등 레버리지 투자 증가 등의 부작용을 야기 가능. 시중은행 대비 낮은 대출금리 제공으로 초기 흥행에 성공한 카카오뱅크가 단적인 사례. 반면 중소기업대출 가산금리 인하는 1) 대기업과의 양극화 해소, 2) 지역 경제 발전 등 정부 정책 방향에 부합.

직관적으로 주도주(시중은행)와 소외주(지방은행) 간의 변곡점이 될 만한 정책 임에는 분명. 다만 1) 낮아진 가계 가산금리 규제 가능성, 2) 중소기업 여신 중심의 자산 포트폴리오 변화 과정에서의 추가 마진 개선, 3) 높은 자본비율 보유 등을 감안시 여전히 시중은행의 투자 매력도가 높다는 판단.

Compliance Notice

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8년 1월 22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2018년 1월 22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8년 1월 22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은경완)

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